



蘇聯의 林業發達과 極東山林開發에 關聯된 우리의 課題

俞 炳 一 / 林業研究院

I. 經濟發展計劃

1. 一般計劃

蘇聯의 一般經濟는 帝政時代 19世紀末 資本主義體制下에서 1880-1890년의 農業 恐慌, 1891년의 大饑饉, 1900년의 大恐慌을 경험하였으며 이로인하여 社會의 不安을 招來하였고 이결과 社會主義革命이 發生하였다. 제 1 혁명(스토루이빈 改革)은 1905년부터 1907년까지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제 2 革命(볼세비키 10월革命)이 1917년 성공함에 따라 社會主義 國家로

變化하였는데 이후 蘇聯은 스탈린이 執權함에 따라 정당주도에 의한 國家發展을 세 계 최초로 試圖한 국가가 되었다.

시베리아에 대한 開發은 2차대전 이후부터 꾸준히 舉論되고 있으며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에는 페레스트로이카(再建)정책으로 대외개방과 외국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極東地域에서 亞太地域國家와의 協力을 要望, 블라디보스토크宣言과 크라스노안로스 크宣言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表 1.

蘇聯의 經濟計劃

年 度	區 分	特 徵
1918 - 1921	戰時共產主義 新經濟政策(NEP)	死活의 內亂期
1921 - 1926		資本主義로 後退
1928	1次 5 個年計劃 2次 5 個年計劃 3次 5 個年計劃 4次 5 個年計劃 5次 5 個年計劃 6次 5 個年計劃 7次 5 個年計劃 8次 5 個年計劃 9次 5 個年計劃 10次 5 個年計劃 11次 5 個年計劃 12次 5 個年計劃	스탈린의 1國社會主義 建設
1928 - 1932		政黨主導에 의한 國家發展 (重工業優先主義, 農業集團化)
1933 - 1937		社會主義 確立期
1938 - 전쟁중단		
1946 - 1950		시베리아는 國內經濟의 後方 基地化
1951 - 1955		
1956 - 1960		시베리아資源 再評價
1961 - 1965		
1966 - 1970		시베리아開發 關心提高
1971 - 1975		"
1976 - 1980		"
1981 - 1985		시베리아開發 再強調
1986 - 1990		



2. 極東計劃

我國林業分野의 關心地域인 시베리아·극동地域의 開發計劃은 소련내에서 그동안 계속 거론되어왔으나 막대한 예산과 노동력이 필요한 관계로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였지만 최근 中蘇頂上會談(1989. 5. 15. 5. 17)의 성공에 따른 양국가의 긴장완화로 가속화 되고 있다.

本計劃의 目標은 ①2000년까지 소련최대의 工業地域으로 育成하고, ②21세기초에 이지역의 輸出量을 현재의 3배로 增加시켜 地域生活水準을 歐露地域과 동일하게 向上시키는 것이다.

手段은 對外協力關聯法을 制定하여 外國의 資本과 技術을 導入하려고 하는데 1988년 合作投資法과 1989년 蘇聯의 對外經濟活動促進에 관한 規程, 蘇聯의 對外經濟活動의 國家規制手段에 관한 規程 등을 公布하여 外國의 關心을 誘導하고 있는 중이다.

具體的인 開發方案은 傳統產業(林業, 水産業, 非鐵金屬工業)과 戰略產業(機械工業)을 相互有機的으로 發展시킴으로써 원자재의 생산과 가공·수출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간의 對外協力狀態는 과거 25년간 日本과 去來를 주로하였으나 현재는 擔保상태

이며 中國과의 交易量이 增大되고 있다. (日本: 1987; 7 천만 루블, 中國: 1983; 6 백만 루블 → 1987; 5 천만 루블)

II. 山林資源 概況

蘇聯의 山林資源은 國土가 廣闊하고 山林調査의 信賴度가 떨어져 調査年度, 調査機關 마다 相異하게 發表되고 있으나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表2와 같이 山林面積은 929만 ha로서 이중 林木地가 792만 ha에 이르고 山林蓄積은 약 790억 m³로서 각각 世界山林面積의 21.5%, 山林蓄積의 24.2%를 차지하고 있으며 保有蓄積 790억 m³중 針葉樹가 약 664억 m³을 차지하여 世界全體 針葉樹 蓄積量 1,245억 m³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蘇聯의 地域別 山林面積 分布를 보면 表2와 같이 시베리아·극동地域에 蘇聯 山林面積의 74%가 集中되어 있다.

表2. 蘇聯의 山林面積分布

유럽·우랄地域	시베리아·極東	중앙아시아
24%	74%	2%

III. 山林資源開發政策

表3

蘇聯의 主要林業政策

	年 度	主 要 事 件	特 徵
자 본 주 의 사 회	1864.	山林의 減少·荒廢實態調査(알렉산드르 2 세)	
	1988.	『山林保護法(山林守護에 關한 規程)』 (알렉산드르 3 세) 山林의 耕地化 방지, 他用度로의 轉換防止. 失敗 (백러시아의 境遇, 1882 山林率 45% → 1917 山林率 22%) 私有林에서 大面積皆伐이 大規模로 進行. 山林保護 妨害.	



	年 度	主 要 事 件	特 徵
제 1 기 '17 '20	1917. 4.	第1회러시아林學者大會：山林의 國家所有 認識	社會主義林業基礎形成
	9 .	第2回 " : "	
	10.	10月革命(불세비키革命)	
	11. 8.	『土地에 관한 布告』→山林의 國有化 實施. 山林의 個人所有 廢止.	
	1918. 1.	中央山林管理局 組織	
제 2 기 '21 '28	5. 27.	『山林에 관한 布告』 山林의 全人民所有 發表 社會主義的 林業組織化 基盤構築(러시아共和國의 全러시아 中央執行委員會 決定)	『戰時共產主義』
	1919. 12. 9.	러시아聯邦共和國에 있어 燃料事業의 組織에 관한 決議	
	1923. 7. 7.	『山林法典』制定. 『러시아共和國 山林法』 러시아聯邦共和國의 社會主義的 林業組織化와 運營의 基本原則·規制規定.	
제 3 기 '29 '41	1924.	러시아聯邦共和國 第1次 林業發展3 個年計劃作成(1925-1928)	『NEP』
	1924. 10.	『林業豫算節次의 變更 및 林業所得向上에 대하여』 決議	
	1925.	政府의 社會主義 工業化 路線에 따라 木材資源伐採 增大(全聯邦共產黨(불세비키) 14차大會에서 決定)	
제 4 기 '41- '50	1929. 7.	勞動. 國防會義 『林業 및 木材工業의 再編에 대하여』 決定 " 『29-33年の 5年間 蘇聯林業 및 木材工業의 發展計劃에 대해서』 決定	林業生産性 向上 『1, 2, 3차』 계획』
	1931. 7.	山林利用制度 確立. 『林業組織에 대하여』 決定. 木材工業地帶·山林育成地帶 區分	
	1932. 1.	全 蘇聯 木材工業管理人民委員會 設立 後日 木材工業人民委員部로 改編	
	1936.	蘇聯聯邦人民委員會 附屬 中央山林保護·植林 總管理局 設置後 水源涵養林 整備 委讓	
제 5 기 '51- '64	1943.	山林을 3 그룹으로 分類	戰淨 및 復興
	1947.	蘇聯聯邦共和國 林業省 組織(콜호즈, 소프호즈 林除外 모든 山林管掌)	
제 5 기 '51- '64	1950.	木材生産企業에 立木料金支拂制度確立	社會主義經濟完成
	1953.	林業省 廢止. 蘇聯聯邦農業省 下 林業·耕地 保護林造成 總管理局에 委讓	
	1959.	林業과 木材工業 統合시킴.	
	1962.	國家山林委員會 創設	



	年 度	主 要 事 件	特 徵
제 6 기 '65-現 在	1965.	蘇聯共產黨中央委員會 9月總會-林業部門 分離復活, 計劃經濟 減少	社會主義組 織確立
	1977.	蘇聯 聯邦共和國의 『山林基本法』 制定	
	1981. 10. 31	蘇聯聯邦 木材·셀룰로즈·製紙 木材加工工業省으로 統一, (필프·木材加工業省)	

蘇聯의 山林은 過去 燃料源, 現在는 經濟發展을 위한 資金調達源 즉, 外貨獲得源으로서 林産物의 位置가 重要하며, 지금과 같이 안정된 林業政策·山林資源 開發政策이 推進되기까지는 社會主義國家 建設이후 수차례 중요한 林政變化가 있었으며 發展

과 退步를 반복하여왔다.

蘇聯의 林政은 建國이後 크게 6期로 區分될 수 있는데 表3과 같이 19세기말 資本主義체제에서 유럽러시아지역의 山林荒廢가 심하였으며 각 시기별 林政 主要事項은 위 表3과 같다.

〈다음호에 계속〉

새로운 솔잎혹파리 驅除 방법개발

- 地面業劑로 費用싸고 公害도 적어 -

솔잎혹파리는 소나무림(林)을 한때 멸종 위기에까지 몰아넣었던 치명적인 해충으로 지난해만 하더라도 총 28만 ha(국내전체 소나무림은 2백 11만 ha)에 걸쳐 발생, 이를 방제하는데 80억여원의 정부예산이 소요됐었다.

지금까지는 솔잎혹파리가 나무에서 한창 기승을 부리는 4월~6월사이 소나무줄기나 뿌리에 약제를 투입하는 「수간(樹幹)주사」 「근부(根部)처리」 방식 등 대중적요법과 먹줄벌레 등 천적을 이용해 솔잎혹파리를 잡아먹는 방법 등이 함께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비싼방제비용, 인력소요, 독성약제잔류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어 보다 효율적인 개선책이 요구돼온 실정이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방제법은 방제효과가 탁월할 뿐더러 기존방제법에 따른 문제

점도 크게 개선된 것이다.

그동안 임업연구원의 실험결과 새로운 방제법은 유충폐사율이 85~98%로, 기존방제법의 80~90%보다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제비용도 ha당 16만원으로 수간주사법의 17만원이나 근부처리방식의 94만원에 비해 크게 절감됐고, 특히 기존방제법이 농번기에 인력을 동원해야하는 반면 새로운 방제법은 농한기에 실시하기 때문에 농가일손을 크게 덜수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사용약제도 「에토프」 등 보통독성의 일반농약을 사용, 공해유발소지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림청은 오는 11~12월 강원 횡성 평창 등 1천 ha를 대상으로 새로운 방제법을 실시한후 내년봄부터는 항공기를 이용해 본격적인 방제를 벌일 계획이다.